



3면

문 대통령 "회복·도약의 새해  
코로나로 韓 개발전"

# 전주매일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음 11월 25일) 제26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약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 전북형뉴딜 방향 '디지털·그린·안전'

도, 종합계획 발표

▶ 관련기사 2면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 수도' 비전

9대 분야 27대 과제  
8대 대표 브랜드 발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25550 실현' 등 목표로  
총 20조7800억원 투자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종자·식품산업 혁신 플랫폼 등 4차산업혁명 대비와 기후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를 정책 골자로 하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이 본모습을 드러냈다.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송하진 도지사, 임성진 교수)는 "그린뉴딜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북도"를 비전으로 9대 분야 27개 중점 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담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총 20조7,800억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만8,000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 및 사업으로 구성



7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북형뉴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됐다.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디지털 전북 ▲(그린) 기후변화 대응으로 대도약하는 그린전북 ▲(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로 따뜻한 행복 전북이라는 3대 정책방향 속에서 '9대분야의 27개과제와 전북 성장의 모멘텀이 될 8대 대표브랜드 사업'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한 해 한국 탄소산업집중원 지정, 2021년 국가예산 8조원시대 개막 등 도정을 위해 숨가쁘게 뛰어왔다"며 "시대적 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뉴딜' 정책으로 전북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지사는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북도'가 되도록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위원장이 임성진 교수는 "전북형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미래를 열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발전 전략이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에서 김제·군산까지 아우르는 수변공간 조성

익산시, 새해 핵심 정책 발표

'물의 도시 프로젝트' 등 정현을 시장, 7대 시책 제시  
도심 숲세권·청년일자리  
관광·복지 등도 포함돼

익산시가 새해 핵심 정책으로 전주와 김제, 군산을 아우르는 '힐링 수변공간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강변에 추진되는 힐링 수변공간 조성은 물과 빛이 어우러진 명품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수변과 의료, 생태가 더해진 도내 최고의 전주 여건을 갖춘 신도심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7일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힐링 수변공간이 담긴 '물의 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한 7대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될 물의 도시 프로젝트는 익산시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수변공간을 폭넓게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명품 주거단지 조성, 젊음이 있는 신도심 형성 등이 담겼다.

먼저 환경강변에 익산 최초로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워터프론트 힐링 수변도시'를 건설한다. 이곳에는 물과 빛을 주제로 명품 주거

단지가 조성되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대폭 상향해 청년이 머무는 젊은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전주와 김제, 군산을 아우르는 명품 수변공간을 만들겠다"며 "10년 넘게 중단된 도시개발이 본격 시작되는 새로움을 시민들에게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혜의 자연을 품은 금강의 수변자원을 활용한 국가정원과 신혼저수지를 품은 신공공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익산시는 이외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숲세권 제공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과 청년일자리 제공 ▲백제역사유적지구 기반인 한국관광 별 도약공간이 담긴 '물의 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한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한다.

정 시장은 "익산시정의 최상위 가치는 주택과 일자리, 환경·문화, 출산·양육 등 4대 핵심정책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체감형 사업을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살맛나는 익산, 다이로움 익산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김제에 최대 22.1cm... 전북도, 눈 피해 예방 '만전'

대설·한파 특보 발효 따라 긴급대책 추진... 제설작업 등 실시

현재(7일 13시) 도내 9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에 김제, 정읍 등 6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발효됐고, 오는 10일까지 5~20cm의 눈과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는 도로제설과 취약계층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7일 13시 기준 도내 전지역에 평균 12.7cm의 적설을 기록했고, 김제가 최대 22.1cm, 임실 18.1cm 그리고 전주가 12.8cm의 적설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9일 새벽까지 눈이 5~20cm 더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으며, 7일 11시 현재까지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8일과 10일 사이, 도내 대부분 지역의 아침최저 기온이 -20°C이하로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 또한 영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대설 및 한파 기간 동안 도내 관공부서, 시·군 재난부서와 함께 대설 및 한파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근길 및 등굣길 안전을 위해 도로 결빙 예상구간에서 전 시·군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지난 6일 밤부터 7일 새벽사이 제설 장비 217대, 인력 388명, 제설제 2,550톤을 투입해 426개 노선의 제설작업을 실시했으며, 민간제설장비도 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33곳의 자동제설장치를 운용 중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 도내 학교의 휴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서도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서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야외활동 자제 등을 문자 발송 21회, 마을 방송 7개소를 통해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운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재난도우미 등을 통해 방문·전화 안부확인 등 실시토록 했다. 현재, 도내에서 적설에 취약한 구조

물 105곳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설 전·중·후 점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적설에 취약한 주거형 비닐하우스 대해서는 주민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대설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 시 한파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등 적설취약 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눈 쓸어내림으로 붕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원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겨울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선제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했으며, 최강한파가 오는 만큼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토·일 신문입니다

## 지난해 조달사업 1조7433억원 집행

전북조달청, 실적 '역대 최대'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지난해 1조7,433억원의 조달사업을 집행해 전북청 역대 최대 조달사업실적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조달사업 실적(1조6,975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102.7% 수준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내자구매(물품·서비스)가 1조3,229억원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시설공사가 4,204억원의 집행 실적을 올리는 등 전년보다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전북조달청은 코로나19 유

행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조달청 이용에 대한 장점 및 다양한 혁신조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혁신조달 제도의 큰 축인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도내 벤처·창업기업들이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업체 및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 제도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김문상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때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